

# 즐기고 싶다면 오라! 구시청으로~

24~25일 구시청 나이트페스티벌  
밴드 공연·먹거리·체험 등 다채  
5월 성인식 축제 등 올해 총 4회

젊은이들의 거리 구시청 사거리의 광주의 '핫 플레이스' 중 하나다. 해가 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불야성을 이룬다.

지난해 동구청은 먹고 마시는 거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의 향취를 더하기 위해 '구시청 나이트 페스티벌'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동명동 카페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음식문화지구로 이어지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광주를 찾는 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양림역사 문화마을을 연결하는 중심 상권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상설 축제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예천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구시청나이트 페스티벌'이 올해 모두 네 차례 열린다. 3월에는 '봄'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며 5월에는 성인식 축제가 개최된다. 7월에는 여름 물축제가 펼쳐지며 9월에도 한 차례 더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4~25일(오후 6시~밤 12시) 열리는 첫 페스티벌은 '봄으로 향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 장소는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구시청 폴리 '소통의 오두막'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일원이다.



지난해 열린 '구시청 나이트페스티벌' 모습.

행사는 먹어 '봄', 즐겨 '봄', 체험해 '봄' 등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먹어 '봄'에서는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거리에 공유테이블을 배치, 구시청사거리의 다양한 먹거리를 포장해 먹을 수 있다.

즐거 '봄'은 버스킹, 밴드, DJ 공연으로 이뤄진다. 24일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재즈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NS재즈밴드 등이 공연을 펼치며 25일에는 김다소미, 양코르밴드가 무대에 선다.

체험해 '봄'에서는 디퓨저 만들기 등 '봄, 향'과 관련된 부스(유료)를 운영한다.

참여 단체는 인블리스(미니꽃다발 만들기, 꽃꽂이), 루치아공방(디퓨저 만들기), 아일랜드들(인센스, 스머지스틱만들기)DK 융합문화예술협회(플라워 하바리움 무드등, 홀로그램 플라워 무드등, 플라워 레진 그림책, 헤어핀) 등이다.

DJ 공연은 24, 25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 고문헌 번역·고전 연구서 출간

장성 고려 문인 서릉 '절효공실기'·영암 월출산 배경 연구서 '두껍전'

지역의 의미있는 고문헌이 국문으로 번역되고, 고전 연구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이 번역한 고려 문인 서릉의 '절효공실기'와 지역문화교육연구센터(센터장 노철)가 발간한 영암 월출산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연구서 '두껍전'이 그것.

고문헌 '절효공실기'는 장성 출신 고려시대 문인 서릉의 가정교육을 엮은 서적으로 그의 행적을 비롯해 역사서, 지리서, 후학과 후손의 추모 현장 기록이 담겨 있다. 호남학연구원은 장성공공도서관의 요청을 받아 번역했다. 김태완 특별연구원이 번역하고 이형성 학술연구교수가 감수를 맡았으며, 책은 장성공공도서관이 발간했다.

언급한 대로 '절효공실기'는 서릉의 가정교육 관련 기록을 엮은 것으로 여기에는 '거가십훈'(居家十訓) 외에도 역사서와 지리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릉은 고문헌 원저자로 고려 무신정권기에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보모 봉양을 하고 학문에 힘쓰며 가정 교육과 지역사회 교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거가십훈'은 책의 핵심으로 장성의 문화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정명중 호남학연구원장은 "'거가십훈'은 상례와 제례를 다룬 부분은 불교가 정신세계를 담당하던 시대에 유교적 상제례의 절차와 의의뿐 아니라 주자가례의 이념을 고려 향촌사회의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며 "유교적 향촌윤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간접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지역문화교육연구센터가 발간한 '두껍전'은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깨달음을 준다는 영암을 무대로 한 작품이다. 책은 해남 수령을 비롯해 해나주 특산물 등이 등장하고 서술 기법상 판소리 사설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학계에 공식적으로 소개되는 '선관적강행'(仙官勸降型) 작품의 이본 자료로 가치가 높다. 즉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깨달음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껍전'의 판독, 입력, 현대역, 교주, 해제 작업은 고려대 김인경 교수와 전남대 국어교육과 조지형 교수가 담당했다.

한편 '두껍전' 발간 기념 콜로키움이 17일 정보마루 컨퍼런스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철 지역문화교육연구센터장은 "센터는 전남대 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된 한국학 관련 고전 자료를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해 해제, 역주, 영인 작업을 거쳐 연구서를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두껍전'이 갖고 있는 학술적 가치와 지역문화적 의의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천명관 '고래' 부커상 후보

4월 18일 최종 후보작 6편 공개

천명관(59) 작가가 영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다.

부커상 홈페이지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천명관 작가의 '고래'(2004)를 2023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롱리스트)로 발표했다. 이 작품을 영어로 옮긴 김지영 번역가도 함께 명단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천 작가를 "8개국 언어로 번역된 작품을 쓴 한국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감독"이라고 소개했다. 후보작인 '고래'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딴 마을을 배경으로 한 '고래'는 세 인물의 삶을 따라간다"며 "전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변화를 재조명한 풍자적 소설"이라고 평했다.

천 작가는 1964년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30대에 충무로 영화사에 들어가 영화 '총잡이'와 '북경 반점' 등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마흔 살에 처음 쓴 단편 소설 '프랭크와 나'가 2003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며 2019년까지 맨부커상으로 불렸다. 최종 후보작 6편은 4월 18일 발표되며 수상작은 5월 23일 가려진다. /연합뉴스

# 佛 3대 미술관 풍피두센터, 서울에 분관

르몽드 "한화와 2025년 오픈·4년간 로열티 280억" 보도

프랑스 파리의 현대미술관인 풍피두 센터가 한화 그룹과 손잡고 한국에 분관을 낸다.

15일 미술계에 따르면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풍피두가 서울에 2025년 분관을 낼 계획이며 한화재단(한화문화재단)과 '풍피두 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4년간 2000만유로(약 280억원)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분관 장소로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옛 한화갤러리야면세점 자리가 거론되고 있다.

풍피두 센터의 한국 분관은 10여년 전부터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부산과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유



프랑스 파리 풍피두 센터.

치전에 나섰다.

풍피두센터는 근현대미술관과 공공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1977년 문을 열었다. 루브르, 오르세와 함께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힌다. 파리 외에도 프랑스 메스, 스페인 말라가, 벨기에 브뤼셀에 분관이 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첫 분관을 개관했다. /연합뉴스



# 유럽 울린 '전쟁후에'

ACC·덴마크 오딘극단 공동 창·제작 공연 4개국 투어 성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덴마크 오딘극단이 공동 제작한 '전쟁후에'(AFTER WAR)는 아시아의 전쟁과 치유를 진지하게 묻는 작품이다.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한 작품이다.

'전쟁후에' 유럽 4개국 투어가 현지시각 지난 2월 21일 덴마크를 시작으로 24일 스웨덴, 26일 독일, 28일 폴란드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 '전쟁 후에' 유럽 투어가 관람객

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ACC재단은 이번 투어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공연장에 맞추기 위해 대극장에서 소극장 형태로 재제작하는 도전을 감행했다.

현지에서는 한국의 차용무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국악의 악기와 소리가 무대 위를 장식했으며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로 마무리 돼 눈길을 끌었다. 관객들은 배우들의 소리와 몸짓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느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